

대학의 학과평가 지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partment Evaluation Indicators in a University

김길훈*
(Gil-Hoon Kim)

목 차

- I. 서론
- II. 현행 학과평가 지표 개관
- III. 현행 학과평가 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V. 결론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대학에도 경쟁 개념이 도입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 교수 및 학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가 좋은 대학과 교수 및 학과는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학평가와 관련된 최근의 큰 이슈는 대학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1.28.)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게 된다.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대의 경우 상대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기본연봉에 업적을 해마다 4등급으로 상대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한 성과가산액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을 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모든 교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을 구성하는 개별 학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학평가와 더불어 2010년부터 학과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14년에는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각각 8개학과를 평가하였다. 각 대학에서도 우수학과 지원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대학의 학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특히 2014년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대학 특성화(CK)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많은 대학이 학과통폐합과 학과 정원감축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과별 평가가 큰 이슈가 되었다.

대학·교수·학과 평가 등 시험에 의한 방법이 아닌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지표)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대학평가지표와 교수업적평가기준은 논의가 많이 되어왔고 다양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학과 평가의 경우 평가목적에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되고 당초의 평가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대학의 학과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일보와 지역거점 국립 A대학교의 학과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의 학과평가 지표에 대한 담론을 제공하고 향후 바람직한 학과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현행 학과평가 지표 개관

2.1 대학평가 지표

학과평가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학과평가를 통해 대학 각 학과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과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평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1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우리나라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94년부터 실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이다. 2014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I. 교육여건(90)		II. 국제화(50)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교수 당 학생 수	10	외국인 교수 비율(전임 이상)	15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15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6
교수 확보율	10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4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5	해외 파견 교환 학생 비율	10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15	국내방문외국인교환학생비율	5
세입 중 납입금 비중	10	영어강좌 비율	10
학생총원을	5		
중도포기율	5		
세입대비 기부금	5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5		
온라인 강의공개 비율	5		
III. 교수연구(100)		IV. 평판·사회진출도(60)	
지표	가중치	지표	가중치
계열평균 교수 당 교외 연구비	15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10
계열평균 교수 당 자체 연구비	10	업무에 필요한 전공 또는 교양교육이 제대로 돼있는 대학	10
인문사회체육 교수 당 국내논문	15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10
계열평균 교수 당 국제학술지 논문	30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	10
계열 평균 교수 당 국제학술지 논문 피인용	10	기부하고 싶은 대학	5
과학기술교수 당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10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5
과학기술교수 당 기술이전수입액	10	순수 취업률	8
		유지 취업률	2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목적은 대학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대학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총 300으로 교육여건이 90, 국제화가 50, 교수연구 100, 평판·사회진출도 60이다.

전체 지표에 대해 Z값을 구하고 가중치 범위 안에서 Z값을 선형 변환한다. 이때 Z값의 평균(0)은 가중치의 중간 값을 부여하고, Z값의 최고점은 가중치 최고점, Z값의 최저점은 가중치의 최저점(0점)을 부여한다. 일부 지표는 구간화 배점(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온라인 강의공개 비율)하고, 교수 확보율과 학생 총원율은 100%를 넘기면 모두 100%로 처리한다. 취업률의 가중치가 10인 것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평가지표가 당초 평가목적으로 밝힌 학생·학부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대학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중앙일보 평가는 외형적이고 양적인 평가지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의 산출물 보다는 투입요소인 인적·질적 교육투자와 관련된 평가지표가 다수 포함되었다. 대학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는 평판·사회진출도의 가중치가 60인데 비해 국제화 가중치가 50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판·사회진출도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있어 기업과 정부의 인사담당자 750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과 업무에 필요한 전공 또는 교양교육이 제대로 돼있는 대학을 설문하고, 교육계(진로진학교사, 고 3 담임 등) 350명을 대상으로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과 기부하고 싶은 대학 및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을 설문하고, 인사담당자와 교육계 1100명에게 향후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설문한 것이 지표의 적합성과 표본의 대표성에 부합되는지는 의문이다.

2.1.2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 선정 평가지표

<표 2>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에 있는 사업단 선정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창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학부교육 강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을 두고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 체질개선 및 특성화 기반 구축 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업단 선정 평가지표를 보면 평가대상은 대학 평가와 특성화 사업단 평가로 구분되며, 평가 내용은 현재 특성화 여건과 향후 계획 평가로 구분된다.

<표 2>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 선정 평가지표

1. 대학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평가지표 (30점)		
하위 영역	세부 심사항목	배점
1. 기본 여건 (15점)	1.1. 재학생 충원율	3
	1.2. 전임교원확보율	2
	1.3. 교육비 환원율	2
	1.4. 장학금 지급률	1
	1.5.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3
	1.6.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3
	1.7.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1
2. 제도 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 (15점)	21. 대학의 목표와 비전	
	① 대학의 비전과 전략 및 특성화 계획	1
	② 사업단 선정 및 지원육성 계획과 대학전체 특성화 계획과의 정합성	3

	22.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계획	
	① 학부교육 내실화 및 체계적 학사관리	1
	②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계획	1
	③ 학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적 및 계획	1
	23.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① 학부교육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개혁 등 실적(최근 3년)	3
	② 대학 전체 구조개혁의 정합성 (학과통폐합 포함)	2
③ 대학의 거버넌스 및 인사행정제도 혁신	3	

II. 특성화역량 평가지표 (70점)

하위 영역	세부 심사항목	배점
3. 특성화 여건 (35점)	31.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①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율	5
	② 전임교원 확보의 질 담보	1
	32.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비율	6
	33.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	8
	34.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① 특성화분야 취업률	7
	② 지난 3년간 학부생 진로 현황	1
	35. 특성화 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①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2
	②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2
	③ 특성화분야에 대한 대학의 투자 실적	1
36.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2	
4. 특성화 계획 (35점)	41.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① 사업단의 교육비전과 특성화 논거 및 계획	4
	② 사업단에 대한 재정지원 이력(정부 재정 지원 사업 포함) 특성화 계획의 정합성	2
	③ 사업단 재정집행 계획의 적절성(타사업과 연계 포함)	3
	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① 특성화 방향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3
	② 전공 교과외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계획	3
	43.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① 학생 선발·양성 및 진로·취업의 질 제고 등 계획	4
	② 학부생에 대한 각종 행·재정 지원 등	3
	44.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①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 체계 내실화	4
② 특성화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4	
45.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5	

* 대학 자율 : 기본-지방대 (100점)의 경우임

사업단 선정 평가는 소속 대학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 30점, 특성화 사업단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여건 관련 양적 지표 비중을 낮추고 학부교육 내실화 등 정성적 지표 비중을 50%까지 높여 향

후 대학들이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학생지원 등 정성적인 지표들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대학평가지표와 관련된 것은 대학 기본 여건 영역으로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지 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 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등 7개 지표이며, 15점이 배점되었다.

또한, 특성화 사업단의 특성화 역량 평가 지표에도 기존의 대학평가지표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성화 여건 영역에서 특성화 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과 특성화 분야 재학생 충원율은 각각 대학 기본 여건 영역의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대학 수준에서 특성화 분야로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성화 분야 전임교원 강의 비율,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은 대학 기본여건에서는 제외하고 특성화 여건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특성화 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산학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지표를 포함하여 특성화 여건 영역에 총 35점이 배점되었다.

2.1.3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표 3>에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교육부, 2014.12.)에 포함된 일반대학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나타나 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이 지표에 따른 대학평가의 목적은 교육부가 2014년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표 3>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항목(60)	평가 지표
교육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8)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학사관리 (12)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교육성과 (15)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5) (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었으나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대학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성지표의 경우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이 평가 준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을 구분하고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 또한,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대학평가결과를 학부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사관리, 교육성과 분야로 이루어졌다. 평가 목적과 관련하여 전임교원·교사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과 교육성과에서 취업률보다 학생충원율의 배점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2.2 학과평가 지표

2.2.1 중앙일보 학과평가 지표

중앙일보의 학과평가 지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 1인당 학진 국내논문, 전임 1인당 국제논문, 전임 1인당 자체연구비, 전임 1인당 교외연구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취업률이다. 그리고 인문사회계의 경우 전임 1인당 저역서, 중도탈락률이 추가로 포함된다. 대학평가와 대비해 국제화 분야 지표가 제외되었다.

각 지표에 대한 개별 대학의 표준화 점수(Z_{ij})를 구하고 대학별로 각 지표의 t 값을 기하평균(geometric mean)해서 대학별 최종 획득점수를 계산한다. 이 최종 획득점수를 -2σ , -1σ , 0 , 1σ , 2σ (σ :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누고 최상, 상, 중상 등 상위 3등급 별로 각각 해당되는 대학을 공시한다.

중앙일보의 학과평가는 각 지표의 t 값을 기하 평균함으로써 대학별 평가와 달리 각 지표의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가지표수가 가중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여건에는 2(인문사회계는 3), 교수연구에는 4(인문사회계는 5), 사회진출에는 1의 가중치가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분야별 가중치가 적정한지와 교수연구 분야에서 각 지표의 가중치가 같은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국내 논문과 국외논문의 가중치는 각각 15와 30이며, 저·역서는 평가지표에서 제외되었다.

2.2.2 A대학교 학과평가 지표

국립 A대학교의 학과평가 목적은 우수학과 선정 및 학과 인센티브 사업 선정에 있다. 학과평가의 목표는 학과 중심의 자율 및 책임 운영체를 정착하여 해당 학문 분야의 교육·연구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정보 공시제와 국내·외 각종 대학 평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평가의 기본방향은 대학평가와 연계하기 위해 정부정책 및 외부평가에서 사용되는 성과지표 위주로 평가하고, 경쟁대학의 동일(유사)학과와 비교평가를 통한 질적 평가를 추구하며,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정성지표를 배제하고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등의 정량지표 자료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A대학교의 학과평가 지표는 <표 4>와 같다.

<표 4> A대학교 학과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1. 교육/ 학과운영 (30)	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4
	1-2 전임교원 강의책임사수 이행 여부	2
	1-3 전임교원 강의평가 결과	3
	1-4 책임지도교수 학생상담 실적	3
	1-5 강의공개실적	2
	1-6 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비율	4
	1-7 재학생 충원율	4
	1-8 중도탈락학생비율*	3
	1-9 학과 홈페이지 운영 실적	2
	1-10 학과 발전기금 확보실적	3
2. 취업/ 국제화 (30)	2-1 졸업생 취업률*	10
	2-2 취업률 증가	2
	2-3 졸업생 진학률	2
	2-4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	2
	2-5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5
	2-6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3
	2-7 외국인 학생 비율	4
	2-8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 여부	2
3. 연구 (40)	3-1 전임교원 연구실적*	24
	3-1-1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	(4)
	3-1-2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동재(후보)지 논문	(6)
	3-1-3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4)
	3-1-4 전임교원 1인당 SCOPUS/SCOPUS 학술지 논문	(10)
	3-2 전임교원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실적*	10
	3-3 전임교원1인당 저·역사실적*	4
3-4 기술이전 수입료	2	
총 25개 지표 : 전국비교 9개(55점), 학내비교 16개(45점)		100

* 전국 국립대학 비교평가(국립대를 대상으로 A 대학교 학과(전공)명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학과외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함]

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1) 타 대학교 비교학과가 10개 이상일 때					
등급(점수)	A(4)	B(3)	C(2)	D(1)	E(0)
타 대학과의 비교 상위	15%이내	16%~30%	31%~50%	51%~75%	75%미만
2) 타 대학교 비교학과가 10개 미만일 때					
등급(점수)	A(4)	B(3)	C(2)	D(1)	E(0)
타 대학과의 비교 상위	20%이내	21%~40%	41%~60%	61%~80%	80%미만

* 산식 : $\{(전임교원\ 강의담당학점 \div 총\ 개설\ 강의학점) \times 100\} \div (해당학과\ 전임교원\ 수 \div 학과\ 재학생\ 수)$

※ 학내 계열별 평균에 미달한 학과는 해당 점수에서 0.5점 감점 처리(이하 타 대학과의 비교 평가시 동일하게 적용)

1-2 전임교원 강의책임시수 이행 여부

등급(점수)	A(2)	B(0)	F(-2)
지표 이행여부	전원이행	미이행(1명)	미이행(2명이상)

1-3 전임교원 강의평가 결과

등급(점수)	A(3)	B(2)	C(1)	D(0.5)	E(0)
강의평가 평균점수	95점 이상	94~90점	89~85점	84~80점	80점 미만

1-4 책임지도교수 학생상담 실적

등급(점수)	A(3)	B(2)	C(1)	D(0.5)	E(0)
학생상담실적	50회 이상	49~35회	34~20회	19~10회	10회 미만

* $1.2\text{학기 책임지도교수 학부생 상담건수} / (1\text{학기 책임지도교수 수} + 2\text{학기 책임지도교수 수})$

1-5 강의 공개실적

등급(점수)	A(2)	B(1)	C(0)
강의공개 건수	2건이상	1건	0건

* 전 학년도에 Korea Open CourseWare에 한 학기 강좌주차별 분량 중 최소 2/3이상의 강의 동영상 또는 강의 동영상+강의 자료를 공개한 실적(건수)

1.6. 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비율

등급(점수)	A(4)	B(3)	C(2)	D(1)	E(0)
대학원(석사과정) 입학비율	20% 이상	19~15%	14~10%	9~5%	5% 미만

* 대학원 관련학과 입학생수/당해연도 2월 학과 졸업생수

1-7 재학생 충원율

등급(점수)	A(4)	B(3)	C(2)	D(1)	E(0)
재학생 충원율	100% 이상	99~95%	94~90%	89~85%	85% 미만

* $\{0.4 \times (\text{전체 재학생수} / \text{편제정원})\} + \{0.6 \times (\text{정원 내 재학생수} / \text{편제정원})\}$

1-8 중도탈락학생비율

1) 타 대학교 비교학과가 10개 이상일 때					
등급(점수)	A(3)	B(2)	C(1)	D(0)	
타 대학과의 비교 상위	15% 이내	16%~30%	31%~50%	50% 미만	
2) 타 대학교 비교학과가 10개 미만일 때					
등급(점수)	A(3)	B(2)	C(1)	D(0)	
타 대학과의 비교 상위	20% 이내	21%~40%	41%~60%	60% 미만	

* $\{ \text{중도탈락학생 수} (20 \times 3.3.1. \sim 20 \times 4.2.28.) / \text{재적학생수} (20 \times 3.4.1. \text{기준}) \} \times 100$

1-9 학과 홈페이지 운영 실적

상(2점), 중(1점), 하(0점)으로 하며, 외부 모니터링(교육부 등) 결과 개인정보 유출, 허위·과장 광고(홍보) 등으로 지적된 경우 F(-2점)

1-10 학과 발전기금 확보실적

A(3점)	B(2점)	C(1점)	D(0점)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2-1 졸업생 취업률

등급(점수)	A(10)	B(7.5)	C(5)	D(2.5)	E(0)
--------	-------	--------	------	--------	------

* 등급 결정 방법은 1-1과 같음

2-2 취업률 증가

등급(점수)	A(2)	B(1.5)	C(1)	D(0.5)	E(0)
전년 대비 취업률 증가	20%p 이상	20~15%p	15~10%p	10~5%p	5%p 미만

2-3 졸업생 진학률

등급(점수)	A(2)	B(1)	C(0)
졸업생 진학률	30%이상	29~15%	15%미만

* 진학자/{졸업자-(취업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직장가입 제외 대상자)}×100

2-4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

등급(점수)	A(2)	B(1)	C(0)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	10% 이상	10~5%	5% 미만

2-5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등급(점수)	A(5)	B(4)	C(3)	D(2)	E(1)	F(0)
교환학생 비율	3% 이상	2.9~2%	1.9~1%	0.9~0.5%	0.4~0.1%	0.1%미만

2-6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등급(점수)	A(3)	B(2)	C(1)	D(0)
교환학생 비율	2% 이상	1.9~1%	0.9~0.1%	0.1% 미만

2-7 외국인 학생 비율

등급(점수)	A(4)	B(3)	C(2)	D(1)	F(0)
외국인 학생비율	7% 이상	6.9~5%	4.9~3%	2.9~1%	1% 미만

2-8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여부

지표 \ 등급	F(2)	F(0)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 여부	확보(1명 이상)	미확보

3-1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

등급(점수)	A(4)	B(3)	C(2)	D(1)	E(0)
--------	------	------	------	------	------

* 등급 결정 방법은 1-1과 같음

3-2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등급(점수)	A(6)	B(4.5)	C(3)	D(1.5)	E(0)
--------	------	--------	------	--------	------

* 등급 결정 방법은 1-1과 같음

3-3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등급(점수)	A(4)	B(3)	C(2)	D(1)	E(0)
--------	------	------	------	------	------

* 등급 결정 방법은 1-1과 같음. 단, 실적이 없는 비교 대상 학과가 50%이상이며, A 대학교 학과가 실적이 없는 경우

등급(점수)	A(2)	B(1.5)	C(1)
실적 없는 학과비율	90%이상	89~70%	69~50%

3-4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

등급(점수)	A(10)	B(7.5)	C(5)	D(2.5)	E(0)
--------	-------	--------	------	--------	------

* 등급 결정 방법은 1-1과 같음. 단, 실적이 없는 비교 대상 학과가 50%이상이며, A 대학교 학과가 실적이 없는 경우

등급(점수)	A(5)	B(3)	C(1)
실적 없는 학과비율	90%이상	89~70%	69~50%

3-5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실적

등급(점수)	A(10)	B(7.5)	C(5)	D(2.5)	E(0)
--------	-------	--------	------	--------	------

* 등급 결정 방법은 1-1과 같음. 단, 실적이 없는 비교 대상 학과가 50%이상이며, A 대학교 학과가 실적이 없는 경우

등급(점수)	A(5)	B(3)	C(1)
실적 없는 학과비율	90%이상	89~70%	69~50%

3-6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실적

등급(점수)	A(4)	B(3)	C(2)	D(1)	E(0)
--------	------	------	------	------	------

* 등급 결정 방법은 1-1과 같음. 단, 실적이 없는 비교 대상 학과가 50%이상이며, A 대학교 학과가 실적이 없는 경우

등급(점수)	A(2)	B(1.5)	C(1)
실적 없는 학과비율	90%이상	89~70%	69~50%

3-7 기술이전 수입료

A(2점)	B(1.5점)	C(1점)	D(0.5점)	E(0점)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Ⅲ. 현행 학과평가 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A대학교 학과평가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중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3.1 교육/학과운영 평가영역

교육/학과운영 평가영역 중 ‘1-2 전임교원 강의책임시수 이행 여부’, ‘1-4 책임지도교수 학생상담 실적’, ‘1-5 강의 공개실적’, ‘1-6 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비율’, ‘1-9 학과 홈페이지 운영 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임교원 강의책임시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강의책임시수는 전임교원의 의무적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교수의 업적평가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이 항목은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과평가 지표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4 책임지도교수 학생상담 실적’과 관련하여 학생에 대한 상담은 교육/학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과평가에 있어 학생상담 건수를 기준으로 평

가하는 것은 너무 양적인 평가로 보여 지고 질적인 평가 측면이 없어서 학과평가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별도의 평가영역인 학과운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생만족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만족도에 대해서는 '3.4'에서 설명한다.

'1-5 강의 공개실적'이 평가목적인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는 의문이다. Korea Open CourseWare에서 동영상 강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공개하는 건수와 우수학과 선정과 관련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비율'과 '2.3 졸업생 진학률'은 졸업생 중 대학원 입학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비록 두 지표의 산식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지표를 '1. 교육/학과운영'과 '2. 취업/국제화' 평가영역에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즉, '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비율 = 대학원 관련학과 입학생수/당해연도 2월 학과 졸업생수'이고, '졸업생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취업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직장가입 제외 대상자)}×100'이다. 두 산식의 분모가 졸업생이든 졸업생에서 취업자와 입대자를 제외하든 분자인 대학원 진학자가 많으면 높아지므로 모두 대학원 입학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1. 교육/학과운영' 평가영역의 '1.6 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비율'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A대학교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 평균이 4.5~5.5%로 국립대학교 평균 9.5~10.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대학원 진학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학원 진학률(신입생 입학비율)이 높은 학과는 교육/학과운영에 있어 보다 우수한 학과로 보겠다는 것인데,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비율보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학과를 교육/학과운영에 있어 우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학부 교육의 목표가 취업 비율보다 대학원 진학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평가항목을 특별히 넣을 이유가 없다. 만약 대학원 진학률 제고가 학교 교육의 정책 목적이라면 학과평가 지표에 대학원 진학률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대학원 진학률 제고 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립하여 이를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9 학과 홈페이지 운영 실적'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할지 불명확하고 이것을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으로 하는 학과평가에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를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6 중도탈락학생비율'은 전국 대학의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학과와 상대평가에 의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1-1 전입교원 강의담당비율' 등에서는 각각의 등급에 배분되는 비율이 비슷한데 중도탈락학생비율의 경우에는 상위 50% 미만일 경우 D를 부여하고 0점

처리하고 있다. 상대평가 적용에 있어 중도탈락학생비율만 특별히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1-7 재학생 충원율'과 마찬가지로 중도탈락학생비율도 학내 비교평가 방법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도탈락학생비율과 관련하여 교육/학과운영의 평가지표로 전과(순전입)비율[= (전입생 수 - 전출생 수)/재학생 수]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학생충원율과 중도탈락학생비율과 마찬가지로 교육/학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10 학과 발전기금 확보실적'은 '교육/학과운영' 평가영역이기 보다는 사회평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평판 영역에 대해서는 '3.4'에서 설명한다.

3.2 취업/국제화 평가영역

'2-2 취업률 증가' 전년대비 취업률 증가가 20%p 이상일 경우 A(2점)이고 5%p미만일 경우 E(0점)이다. 전년대비 취업률 증가가 20%p 이상인 학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5%p미만일 것이다. 따라서 현행 등급 결정방법에 따르면 학과 간 변별력 없다는 문제가 있다. 취업률 증가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평가등급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대학원 진학률'은 취업/국제화 평가영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3.1 교육/학과운영'에서 설명한 '1.6 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비율'과 마찬가지로 학과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2-3 졸업생 진학률'은 대학원 진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가 취업률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지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학부 졸업생 취업률(10점), 졸업생 진학률(2점)으로 대학원 진학률을 우대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군 입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할 때 분모(취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취업률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졸업자-(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직장가입 제외 대상자))] × 100'이다. 또한, 이 취업률 산식에서 따라 취업률을 측정할 경우 대학원 진학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취업률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에 따른 효과는 이미 취업률 산정에 충분히 조정되고 있으므로 '2. 취업/국제화' 평가영역에서 '2-3 대학원 진학률' 지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4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가 학생들의 취업기회 탐색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지

만 이를 우수학과 선정과 관련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취업기회 탐색에 대한 노력의 결과는 결국 높은 취업률과 취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2-1 졸업생 취업률'과 '2-2 취업률 증가'의 평가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을 추가로 평가지표에 포함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2-2 취업률 증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업률 증가 지표에 있어서는 대부분 학과가 0점이고 학과 간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률 증가와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 평가지표의 배점은 2이다. 따라서 두 평가지표의 배점이 적정한 가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률 증가라는 결과보다는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에 따라 취업 점수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는 해당 학생들의 취업기회의 부여 과정에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로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2.4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은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에서 'Ⅱ. 국제화' 지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이 지표의 하나인 영어강좌 비율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전공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영어강좌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전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중앙일보는 학과평가 지표에서 국제화 관련 지표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 선정 평가지표와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에서도 국제화 관련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A대학교가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학과평가에 있어 학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제화 관련 지표를 상당한 배점으로 학과평가 지표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국제화 지표는 학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바, 전임교원 연구실적과 취업률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비교가 아닌 학내비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해외과건 교환학생 비율,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다고 우수한 학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더욱이 해외과건 교환학생 비율이 취업률 배점의 50%이고,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의 합계가 교육부나 사회에서 교육의 가장 큰 성과물로 간주하고 있는 취업률(10점)의 70% 정도의 중요한 평가항목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2-5 해외과건 교환학생 비율', '2-6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2-7 외국인 학생 비율'은 평가지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항목을 평가비표에 포함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배점을 각각 1점씩으로 하여 총 3점(취업률의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과건 교환학생 비율,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은 학문 또는 학과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

는 항목이다. 따라서 전체 대학 수준의 학과별 평균적인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평가지표는 학내 비교가 아닌 전국비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2-8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 여부’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전임교원은 교수공채 인원배분 시부터 해당 학과에 특혜를 주고 있다. 임용되고 난 후에도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학과평가에서 다시 가점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3 연구 평가영역

‘3-1 전임교원 연구실적’에서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 4점,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8점,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4점,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 10점은 학과의 교수에게 백화점식으로 논문을 발표하라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최고 등급인 SCI에만 탁월하게 많은 논문을 발표한 학과에서 다른 그 이하 수준의 논문은 거의 발표하지 않은 경우 SCI에서만 10점 만점을 받고, 다른 16점 만점 분야에서는 등급이 낮아 0점을 받은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인문사회계는 SCI가 주요 논문이 아닌바, 특정학과가 배점이 높은 SCI에 A등급을 받아 다른 학과에 비해 유독 괄목할만한 평가점수를 얻을 경우 이 항목이 순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A대학교 교수업적평가기준과 같이 각 발표지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이 종합점수를 전국 비교한 등급에 따라 전임교원 연구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연구활동 영역 평가를 위한 A대학교 교수업적평가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A대학교 연구활동 영역 평가를 위한 교수업적평가기준

평가항목		건당 점수	비고
논문	국제전문 학술지	IF값 200이상 학술지	· 평가단위내 자연·공학·농수해양·의학계열과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이 함께 평가 받을 경우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기준점수의 50% 가산
		SCI(E), SSCI, A&HCI	
		SCOPUS	
	국내전문학술지	100	
	국제기타학술지	40	
	국내기타학술지	40	· 대학 연구소 학술지는 연 40점까지만 인정

저서 및 번역서	외국어학술저서 (해외출판)	250	· 평가단위내 자연공학농수해양의학계열과 인문사회여체능계열이 함께 평가 받을 경우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기준점수의 50% 가산
	학술저서 (국내출판)	200	
	외국어번역서 (해외출판)	150	
	번역서 (국내출판)	150	

또한,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학과평가에서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3-1-1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과 3-1-3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2 전임교원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실적'의 배점이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과 같은 10점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비(교외 대응자금 포함)가 교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연구차원에서 직접 외부로부터 수주한 순수 연구비의 성격 보다는 학부 학생 중심의 각종 인력양성사업, 대학 육성사업, 전문가 양성사업 등의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외연구비 수혜실적의 배점은 논외로 하고 이것이 교수의 연구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하는 지표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교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연구차원에서 직접 외부로부터 수주한 순수 연구비의 집계가 어려울 경우 이를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전국비교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평가지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술이전 수입료가 있는 연구는 성공한 기술개발이라 할 수 있고, 기술개발 과정에서 연구 성과가 대부분 논문으로 발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후에 기술이전 수입료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속 연구 성과에 반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의 질과 관련해서는 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SCI, 스타급 학술지 여부와 피인용지수 등 해당 연구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 학과평가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 선정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도 포함되지 않은 '3-4 기술이전 수입료'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4 새로운 평가지표 및 배점 조정

A대학교의 학과평가 기본방향의 하나는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정성지표를 배제하고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등의 정량지표 자료를 우선 활용한다는 것이다. Kaplan과 Norton(1996)에 따르면 재무적 성과만을 강조하거나 정량적 지표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대학평가와 마찬가지로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학과평가에 있어도 교육의 대상인 학생과 수요자인 사회의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정보공시 등의 정량지표만이 아니라 질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 만족도 및 사회적 평판을 평가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고3 학생들이 가장 입학하고 싶어 하는 대학교의 특정학과가 대학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대학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중앙일보의 학과평가에서 최우수는 물론 우수 등급에도 들지 못하는 평가결과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중앙일보 학과평가 결과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량적인 교수 연구실적과 질적 요소를 무시한 단순한 취업률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의 평판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학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학생 대상의 학과 만족도 및 사회적 평판을 평가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진로진학교사, 고 3 담임 등)과 제주도에 있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학을 추천하고 싶은 학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과,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학과, 업무에 필요한 전공교육이 제대로 돼있는 학과, 국가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가 큰 학과에 대한 설문문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1. 교육/학과 운영' 평가영역인 '1-10 학과 발전기금 확보실적'은 평가영역을 옮겨 사회적 평판이라 할 수 있는 기부하고 싶은 학과의 측정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대학교의 학과평가 지표 세부내용에 따르면 전국비교에 의한 등급 결정에 있어서 타 대학 비교 학과가 10개 이상일 때는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5%이내이고, 타 대학 비교 학과가 10개 미만일 때는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20% 이내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비교 학과가 10개 이상과 미만에 따라 등급 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통일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영역에 대한 배점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가장 큰 취업률은 12점이고, 연구는 40점이며 국제화는 14점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학과 발굴과 해당 학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학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업률은 최소한 연구와 동일한 배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화 평가영역은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지표에 포함할 경우에도 취업률에 비해 10% ~ 15% 정도의 배점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한 대학교의 학과평가 지표 개선안은 <표 6>과 같다.

<표 6> 대학교 학과평가 지표 개선안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교육/ 학과운영(20)	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8	
	1-2 전임교원 강의평가 결과	5	
	1-3 재학생 충원율	2	
	1-4 중도탈락학생비율	2	
	1-5 전과비율	3	신설
2. 취업(30)	2-1 졸업생 취업률*	25	
	2-2 취업을 증가	5	
3. 연구(30)	3-1 전임교원 연구실적*	30	<표 5>에 따른 종합점수로 평가
4. 학생 만족도 및 사회적 평판 (20)	4-1 재학생 만족도	5	신설
	4-2 입학을 추천하고 싶은 학과	3	
	4-3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과	2	
	4-4 신입시원으로 뽑고 싶은 학과	3	
	4-4 업무에 필요한 전공교육이 제대로 돼있는 학과	3	
	4-5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기여가 큰 학과	2	
	4-6 학과 발전기금 확보실적	2	
총 15개 지표 : * 전과비교 3개(55점), 학내비교 12개(45점)		100	

IV. 결론

본 연구는 바람직한 대학의 학과평가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중앙일보와 지역저점 국립 A대학교의 학과평가 지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적합한 학과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대학교의 학과평가 지표를 검토한 결과 평가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고, 각 지표의 배점에 있어서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평가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평가지표가 포함되고 각 지표에 대한 배점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과평가 결과의 사용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학과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지표는 교육/학과운영 평가영역에서 '1-2 전임교원 강의책임시수 이행 여부', '1-4 책임지도교수 학생상담 실적', '1-5 강의 공개실적', '1-6 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비율', '1-9 학과 홈페이지 운영 실적'으로 판단된다. '1-6 중도탈락학생비율'은 '1-7 재학생 충원율'과 마찬가지로

지로 학내 비교평가 방법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취업/국제화 평가영역에서 '2-2 취업률 증가'는 현행 등급 결정방법에 따르면 학과 간 변별력 없다는 문제가 있어 취업률 증가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평가등급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대학원 진학률'은 취업/국제화 평가영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학과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원 진학에 따른 효과는 이미 취업률 산정에 충분히 조정되고 있으므로 대학원 진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가 취업률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아 대학원 진학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4 취업전략본부 경력점수 상위자 비율'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제화 평가지표인 '2-5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2-6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2-7 외국인 학생 비율', '2-8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 여부'와 연구 평가영역에서 '3-2 전임교원1인당 교외연구비 수혜실적'과 '3-4 기술이전 수입료'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1 전임교원 연구실적'의 경우 각각의 발표 형식과 수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여 구분 평가하는 것보다 기존의 A대학교 교수업적평가기준과 같이 각 발표지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이 종합점수를 전국 비교한 등급에 따라 전임교원 연구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수학과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학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학생 대상의 학과 만족도 및 사회적 평판을 평가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진로진학교사, 고 3 담임 등)와 지역에 있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학을 추천하고 싶은 학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과,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학과, 업무에 필요한 전공교육이 제대로 돼있는 학과, 국가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가 큰 학과에 대한 설문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영역에 대한 배점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가장 큰 취업률은 12점이고, 연구는 40점이며 국제화는 14점으로 연구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률에 대한 배점은 너무 낮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과평가 목적에 부합되는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한 배점 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학과평가 지표에 대한 담론을 제공하고 향후 적절한 학과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3),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교육부(2014),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
교육부(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보도자료(2014.1).
교육부(2014),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중앙일보 대학평가팀(2014), 2014년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 설명 자료집.
Kaplan, R. S. and D. P. Norton, The Balanced Scorecar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6.